

Style 1 조선일보

SEPTEMBER 2022
vol.242





Cartier



A lighthearted day



BOTTEGA VENETA



TRÉSOR COLLECTION

NICOLE KIDMAN'S CHOICE

니콜 키드먼은 스크린에서의 뛰어난 연기는 물론 레드 카펫 스타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이며 2005년부터 오메가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트, 우아함, 그리고 시계에 대한 남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자신의 무드에 맞는 타임피스를 선택하는 것을 즐깁니다. 니콜 키드먼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아이코닉한 타임피스 18K 문사인™ 골드 소재의 미니 트레저 26mm 모델을 착용했습니다.





1954 *The Expedition*



1968 *The Games*



1972 *The Performance*



1986 *The Paninaro*



2013 *The Revolution*



2013 *The Forest*



2013 *The Sun*



2014 *The Moon*



2019 *The Stage*



2019 *The Unexpected*



2020 *The Mountain*



2020 *The Space*



2021 *The Opera*



2021 *The Snow*



2022 *The Now*



2022 *The Planet*





토즈의 2022 F/W 컬렉션에서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움(Italian Beauty)을 주제로 새로운 활용도 높은 컬렉션을 선보인다. 카버를 장식한 롱에서는 모던한 실루엣의 재킷과 오버핏 코트, 실용적인 슬림 팬츠, 그리고 타이트한 디자인의 아이코닉한 디 백과 케이트 로퍼를 매치했다. 토즈만의 이탤리안 감성을 대변하는 스타일이다. 문의 02-3438-6008



- 20 **아트 페어와 축제, 그리고 브랜드의 명암(明暗)**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서울에는 그야말로 '뜨거운' 아트 주간이 펼쳐졌다. 가을이면 미술계를 들썩이게 하는 키아프(Kiaf Seoul)와의 공동 개최로 세계적인 아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의 아시아 시장 첫 진출자가 된 서울에서는 갤러리와 미술관은 두말할 것 없고, 패션,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자존심을 건 전시 콘텐츠와 행사를 앞다퉈 선보였다.
- 22 **DEFYING BOUNDARIES** 얼마 전 서울 송원아트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개인전을 위해 멀리 미국 뉴욕에서 찾아온 가다 아메르(Ghada Amer), 작업 세계는 어느 정도 낮은 편이었지만 그녀의 대담은 처음이었는데, 폭풍 같은 일정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유쾌하면서 도전정신이 담긴 대화를 나누게 된 행운이었다.
- 24 **PERROTIN ON THE GO** 한 도시 안에 다양한 특색이 존재하는 서울에 문화 예술 공간이 새로운 개념처럼 생겨나고 있는 요즘이다. 양질의 전시를 소개하면서도 공간까지 눈길을 끄는 글로벌 갤러리들의 서울행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찌감치 한국 시장에 터를 잡고 꾸준히 국내 갤러리들의 마음을 두드려온 갤러리 페로틴의 행보가 눈에 띈다. 아트 페어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의 입성을 앞두고 서울 강남에 2호점을 내면서 해외 갤러리로는 최초로 강북(삼정), 강남(도산파크), 두 곳에 전시 공간을 운영하게 됐다.
- 25 **우리는 아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울 강서구 일대에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는 현대미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마곡동의 스페이스K 서울에서는 프리즈 서울 주관을 앞두고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스페이스K 서울이 강서구와 기획·협업한 에릭 오(Erick Oh, b. 1984)의 신작 단편 애니메이션 <오리진(Origin)>이다.
- 26 **FABULOUS VOLUME** 이롭담과 매력적인 빅 사이즈 링 하나면 충분하다.
- 27 **GOLD RUSH**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골드로 이뤄진 일명 '통골드' 위치의 매력.
- 28 **NEW FACE** 늘 새 시즌이 되면 쏟아지는 브랜드 얼굴들. 이번 시즌을 책임질 F/W 뉴룩.
- 30 **BIG MATCH** 필드 위에서 펼쳐지는 스타일리시한 게임, F/W 뉴룩 파워 컬렉션.
- 38 **ART FOR BEAUTY** 오랜 시간 지속되는 아름다움을 위한 연구 개발 끝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발몽(Valmont). 이를 시각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담긴 발몽 아트 재단(Fondation Valmont)에 대한 이야기.
- 40 **THE COLOR OF AUTUMN** 서서히 붉어지는 단풍처럼, 입술 위에 가을 색이 물든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곁에 찾아온 신상 립스틱 리스트.
- 41 **ONE FINE DAY** 가을의 문턱에서 즐기는 쿨 & 프레시 향수.
- 42 **EDITOR'S PICK** 새로운 계절을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달, 새 기분을 선사할 이탤리안 뷰티템 13.

Style 조선일보 Issue.242 September 202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코일 | 이장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해·재판 리은 인쇄 | 타라티미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외로 발행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통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POIRET

SIMPLY THE BEST

한곳 자이로 만들어내는 디테일 약간의 변주를 더해 더욱 매력적으로 즐기는 심플 밴드 링. (위부터) 얇고 굵은 2개의 라인을 결합한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피로 라인 메리지 링, 1백89만원 **타사기**. 문의 02-3461-5558. 단순함의 미학이 돋보이는, 영원을 상징하는 심플한 디자인의 플라티넘 웨딩 링 2백만원대 **피아제**. 문의 02-3479-1802. 곡선 디테일이 매력적인 핑크 골드 프레드 쿠드 푸르드 웨딩 링 2백10만원 **프레드**. 문의 02-514-3721. 연인을 위한 세라니에 피아제를 모티브로 한 밴드 링 1백22만원 **타사기**. 문의 02-3461-5558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주미** 아티스틱 **신정림**



경이로운 올 블랙

시대와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늘 클래식한 컬러로 우리를 반겨주는 블랙. 크리스찬 디올 역시 블랙의 매력을 칭송하며 블랙에 관해사리만 책 한 권을 펴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다. 이번 디올 타임피스 역시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게 될 워터가 바로 올 블랙이다. 디올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블랙 컬러를 기반으로 구현된 라디 디올 블랙 울트라매트(La D de Dior Black Ultramate)가 그 주인공. 오묘하게 반짝이는 블랙 DLC 코팅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특성으로 은은한 매력을 더하며 세련된 감각을 선사한다. 베젤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1,137석을 시팅했다. 지름 34mm의 쿼츠 모델. 문의 02-3480-0104



WHITE DREAMS

늘 새로운 우아함을 추구하는 반클리프 아펠에서 아름다운 또 하나의 주얼리 컬렉션 플로레트를 탄생시켰다. 화이트 골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적절히 사용한 화이트 주얼리에 대한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을 선보이며, 이 중 7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눈부신 자태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플라워를 다섯 송이 파우린 플로레트 네크라스가 단연 돋보인다. 여성이 목에 인착했을 때 더욱 빛나는, 간결하지만 가치 있는 실루엣은 반클리프 아펠이기에 가능하다. 문의 1877-4128



NEXT STEPS

글로벌 패션 하우스 펜디가 스트리트 스타일에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트레이너 펜디 패스터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클래식한 러닝 슈즈 디자인이 특징으로, 혁신적인 디테일과 소재 및 라인, 시그니처 펜디 코드를 결합해 헤리티지와 모던함의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냈다. 미시와 테크니컬 페브릭에 고급스러운 가죽을 섬세하게 조합해 빈티지한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러닝 소재의 FF 로고 디테일로 강렬한 포인트를 더했다. 가벼우면서도 편안한 착용감까지 선사하니 올가을에는 펜디 스니커즈가 재킷일듯, 1백만원대. 문의 02-514-0652



매혹의 바다

늘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정인이 만든 하이 퀄리티 주얼리 세계를 선보이는 주얼리 & 워치 매종 소매에서 새로운 하이 주얼리들을 소개했다. 푸르고 드넓은 바다를 모티브로 한 이 컬렉션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특별한 원석을 사용한 링. 특히 바다의 요정 세이렌의 자주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라인의 링이 돋보이기로 매혹적이다. 무려 6.37캐럿의 쿠션 컷 그린 투르말린을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밴드에 올려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피스로 가득한 이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찬사를 보낸다. 문의 02-3442-3359



METAL ACCENT

포인트가 되는 메탈 장식으로 액을 더하는 백 3.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비비드한 에스트 그린 컬러의 폴리츠 나라 가죽 소재의 미니 주얼 사철 백 2백9만원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905-3472. 트랜드한 핑크 컬러의 세련된 소재 스카이라인 백으로 크리스탈 비벌이 인상적인 비보 스코 주얼 백 미니. 21.1X11.4X5.1cm, 4백9만원 **포지 바비에**. 문의 02-6905-3370.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여왕이 편안하기 만화사 시크한 올 블랙에 골드 스타드 포인트를 더한 원 스트랩 톱들을 백 3백5만원 **발렌티노 가브리엘라**. 문의 02-2015-4653. 포토그래퍼 **최민정** 에디터 **성정민** 아티스틱 **신정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GOOD FRAMED

레더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어 늘 수려한 세이프와 곡선미를 담은 백을 선보이는 토즈에서 새로운 백을 선보인다. 중앙의 림 디테일과 튜브 형태 핸들이 돋보이는 우아한 쇼퍼 백으로, 앞면을 스템핑 토즈 로고로 장식했다. 부드러운 카프 스킨이라 여왕이 편안하며, 조절 및 탈착 가능한 솔더 스트랩을 활용해 다채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정사각형의 미니 사이즈와 직사각형의 스몰 사이즈,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어 컬러는 각 다섯 가지 컬러로 제공한다. 미니 2백63만원대, 스몰 2백99만원대. 문의 02-3438-6008



FRESH & CLEAN

다양한 텍스처로 세안 시간을 더욱 즐겁게 해줄 클렌저. (위부터) **마에트 키링 케어 클렌징 피우더** 거품 타입으로 물을 만나면 거품이 생겨 부드러운 각질 제거와 함께 알뜰한 노폐물 제거를 도와줄 클렌저 50g 4만5천원. 문의 070-8676-3432 **갈레르노 보메 하이-피피오 클렌징 오일** 가벼운 텍스처의 오일이 모공 깊은 곳까지 작용해 불순물을 갠샤 울로 행구면 끈적이나 유분감 없이 알뜰하고 깨끗하게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세정한다. 200ml 8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키엘 헤이얼 클렌저** **꽃잎 클렌징 바** 풍성한 거품과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칼렌듈라 꽃잎을 함유해 민감해진 피부에 자극 없는 세안을 돕는다. 100g 3만2천원대. 문의 080-022-3332 **누텍스처 하이드레이팅 젤 클렌저** 워터리한 젤 제형이 메이크업 물리도 미세한 거품을 형성해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세안 후에도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 촉촉하게 마무리한다. 195ml 3만2천원대. 문의 070-8787-6008 포토그래퍼 **최민정** 에디터 **성정민** 아티스틱 **신정림**

The 'KHEE' Effect!



프리미엄 소주 열풍이 불고 있는 대한민국에 참신한 새 브랜드가 등장했다. 세계 문화 예술계에서 유명세를 떨쳐온 에바 차우(Eva Chow)가 새롭게 내놓은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키(KHEE). 인공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100% 최고급 국산 쌀과 지하 150m 천연 양반수로 만든 키 소주는 부드럽고도 강렬하며, 독특한 향을 지녔다. 한국의 소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에바 차우의 뜻을 응원하기 위해 배우 이정재는 포토그래퍼 홍진화과 함께한 30초짜리 필름을 선보이기도 했다(브랜드 공식 인스타그램 @kheesoju, 그리고 배우 이정재의 인스타그램 @from_jje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수에 따라 22%와 38%, 두 가지 버전이 출시되었고, 사이즈도 375ml, 750ml, 두 가지다. 캘리포르니아, 신세계, 현대 등 전국 백화점과 특급 호텔, 레스토랑과 와인앤모어 등 유명 전문점, 그리고 일부 레스토랑과 바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 향기에 반하다

늘 우리에게 잘만든 향을 통해 무한한 영감을 선사하는 오피신 유니버설 불리에서 새로운 향수를 출시한다. 때를 향미오토로프는 화려한 기운 파티에서 날 듯한 신선하고 유쾌한 향으로 영화 (워터랜드 개조비)의 무드를 떠오르게 한다. 우아하고 섬세한 꽃 향이 주를 이루며, 로맨틱한 바이올렛과 비블라, 샌들우드, 톱카빈의 우디 노트가 결합되어 매력적인 향으로 마무리된다. 75ml 23만원. 문의 031-688-5551

SWAROVSKI

for her
Selection
F/W 트렌드를 완성할 여성의 컬러, 핑크.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베이지 핑크 칼라와 블랙 리본이 우트 있는 싱글브레스트 트루트 재킷 3백78만원대 미우미우.

로즈 골드 소재에 핑크 오팔과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완성한 다라스 드릴 네크리스 6백만원대 불가리아.

1개의 에메랄드 컷모가 화이트 12.79카럿, 42개의 다이아몬드 1.03카럿, 18K 화이트 골드에 블랙 라커 디테일을 더한 방울 리즈레 링 4천8백50만원 부쉐론.

핑크 펠스킨 보드에 블랙 벨벳 리아성을 매치한 메리 제인 슈즈 가격 미정 사넬.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핑크 오팔과 다이아몬드 세팅을 더한 핑크 오팔 네크리스 100만원대 로즈 골드 12만원 불가리아.

스웨이드 소재의 핑크 오팔 소재의 코릴 핑크 펠스킨 1백50만원대 에르메스.

귀여운 베리 알라스트 패턴의 캐시미어 소재 니트 카디건 1백45만원 베리.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핑크 오팔과 다이아몬드 세팅을 더한 핑크 오팔 네크리스 100만원대 로즈 골드 12만원 불가리아.

100% 양모 소재의 핑크 오팔 네크리스 100만원대 로즈 골드 12만원 불가리아.

28mm 사이즈에 로즈 핑크 칼라 다이얼이 돋보이는 컨스텔레이션 퀴츠 워치 3백만원대 오메가.

카프 레더 소재의 핑크 레더 스몰 톱 핸들 백 21X15cm, 5백10만원 구찌.

은은한 핑클 기미한 베이지 핑크 칼라의 미모 클래식 장지갑. 19X9.5cm, 21만8천원 조아그리이스.

미우미우 02-3218-5331 에실로 룩스타카 02-501-4436 부쉐론 02-3479-6028 불가리아 02-2066-0170 루이 비통 02-3432-1854 사넬 080-805-9628 발렌티노 가리버니 02-2015-4653 에르메스 02-542-6622 오메가 02-3467-8632 멀버리 02-2018-1439 조아그리이스 080-202-2002 소피스트 02-6905-3390 구찌 02-3452-1521 가니 02-6911-0749 베리 02-3277-0230



2가지 컬러의 총 100% 스티치 112059원
 용불량, 용불량.



라이트 그린 컬러에 핑크 나일론 리본을 조인한 포인트를 추가하여 디자인을 더한 캐주얼한 디자인입니다.



탄소 중립 태깅 공정 가족과 재활용 섬유 안감으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 딥 그린 컬러의 슬랑퍼. 17x6cm, 1백24만원 용불량.



그린 코튼 브레이크 슬링에 화이트 골드 스텔리 포스트 브라운 비닐을 매칭한 스노우볼입니다.



소가죽 100%의 멀티 색상 그린 레더 슈파-스타 스니커즈 85000원 용불량.



브라시드 가죽 소재의 포인트 브라운 타이 62만원 프라다.



카프 스킨 소재의 레이스업 리그 부츠 가격 미정 용불량.



그린 컬러의 클래식한 프레임이 돋보이는 아이웨어 21만5천원 라이덴 by 에실로 로스타가.

for him Selection

트렌디한 남자의 F/W 가을 컬러, 그린.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그린 라버 스트랩과 다이얼이 매력적인 1백49만원 용불량. 43.1천1백만원 IWC.



실버 매시브 브라스 링 가격 미정 디올 맨.



올 그레이너더 드레스 벨트 16만5천원 용불량 로렌.



올라 코트 소재를 적용하여 상아 편안한 핏의 조거 팬츠 가격 미정 에트모.



체코 페르미 언스루 코튼 100% 베스트 가격 미정 에일 by 루스.



배치아 레더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일 주르 미니 레더 브리프케이스 5만5천원 용불량.



카우치 컬러도 온 화이트 배색이 세련된 미니 에일 by 루스.

몽블레르 컬렉션 080-311-0000 코치 080-888-1941 용불량 1670-4810
 프라다 02-3218-5331 프라데 070-4732-0479 용불량 02-3143-9684
 디올 맨 02-3480-0104 보테가 베네타 02-3438-7882 에실로 로스타가 02-501-4436
 IWC 1877-4315 에트모 02-3446-1969 올로 말프 로렌 02-6004-0220
 벨루티 02-547-1895 에르메스 02-542-6622 루스 010-9325-8052



JOY GRYSON

joygryson.co.kr / instagram : @joygryson_official

아트 페어와 축제, 그리고 브랜드의 명암(明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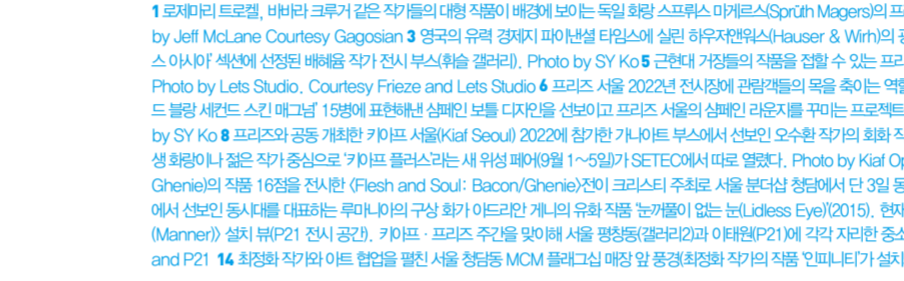
말도 많고, 기대도 많고, 인기는 더욱 많았던 역대급 미술계 잔치가 막을 내렸다. 마치 늦여름의 한바탕 소동이 한가위의 도착과 함께 급작스럽게 끝나버린 듯하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서울에는 그야말로 '뜨거운' 아트 주간이 펼쳐졌다. 가을이면 미술계를 들썩이게 하는 키아프(Kiaf Seoul)와의 공동 개최로 세계적인 아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의 아시아 시장 첫 진출지가 된 서울에서는 갤러리와 미술관은 두말할 것 없고, 패션,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자존심을 건 전시 콘텐츠와 행사를 앞다퉈 선보였다. 또 밤마다 아트 피플을 환영하는 파티가 곳곳에서 열렸으며, 미디어의 취재 경쟁도 불꽃 튀게 타올랐다. 떠들썩했던 키아프 X 프리즈 동행의 첫걸음, 그저 '대박 흥행'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고무적인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역대급' 매출액(약 50억원 규모)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키아프는 올해 판매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관람객 규모(7만 여 명)만 밝혔다. 키아프와 프리즈는 2022년을 시작으로 5년에 걸친 파트너십을 결의하면서 입장도 통합 티켓 시스템을 도입했다. 양 페어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1일권 티켓이 7만원, 다일권은 2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7만이라는 숫자는 꽤 준수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프리즈의 활황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코엑스 1층에 보다 넓게 자리했던 키아프 전시장에도 인파가 몰려들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덜 붐볐다. 참가 갤러리 1백10여 개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흥이 메가 갤러리라 불리는 가오산, 하우스앤하우스, 데미앤드 즈위너 같은 공간들이 총출동한 데다 근한데 가정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프리즈 마스터스 색션까지 보낸 프리즈이기에 제법 차이나 어쩔 수 없었지만 '가성비'보다는 비싸도 브랜드 파워에 기우는 '가성비'가 작동했고, 작품 구매가 목적이 아닌 관람객 입장에서라도 콘텐츠 격차가 나는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일부 갤러리의 유명 작가라 해서 1급 작품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이름값에 달려드는 '몰치 마구 매' 같은 경우도 더러 눈에 띄었다. 재주는 키아프가 부리고, 실속은 프리즈가 챙긴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첫술에 배불렀다?',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프리즈 서울이 그저 '첫술에 배불렀다'고 자만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단 관람 환경은 상당한 원성을 자아냈다. 2003년 런던의 공원에서 텐트를 무대 삼아 시작한 프리즈의 본색을 실려 유무차지 미술 산책하는 동선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전시 공간이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갤러리 부스 간 간격도 좁은데 관람객 밀도는 극도로 높았으니 당연한 무명이다. 아트 페어의 특성상 '근거리 감상'은 좋은 아이디어는 와중에 저질 작품을 망가뜨릴까 하는 우려를 이렇게까지 하면 적은 필자의 경우에도 처음이지 않나

KIAF



상은 어느 정도 예측된 바다(그런데 예상보다 기욤기가 더 심했는지 모르겠다). 최근 몇몇 성장세를 타면서 나름 잘해온 키아프가 굳이 지금에 와서 위성 페어를 자처한다면 모르겠지만 '한국국제아트페어'라는 명칭에 걸려 있듯 'international' 페어를 여전한 지향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프리즈가 경쟁 지인데 어쩌서 '적의 동침을 택했는지' 묻는 이들도 많고 프리즈와 키아프의 개최 시기가 같은 필요는 없다(아예). 키아프는 아트 바젤과 함께 글

상은 어느 정도 예측된 바다(그런데 예상보다 기욤기가 더 심했는지 모르겠다). 최근 몇몇 성장세를 타면서 나름 잘해온 키아프가 굳이 지금에 와서 위성 페어를 자처한다면 모르겠지만 '한국국제아트페어'라는 명칭에 걸려 있듯 'international' 페어를 여전한 지향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프리즈가 경쟁 지인데 어쩌서 '적의 동침을 택했는지' 묻는 이들도 많고 프리즈와 키아프의 개최 시기가 같은 필요는 없다(아예). 키아프는 아트 바젤과 함께 글

이미 달라진 판도,
정체성 다지기와 리브랜딩이 키아프의 지상 과제
어쨌거나 세계적인 아트 페어의 등장은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손기능을 자아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수준 높은 콘텐츠를 반겼고, 눈높이를 높였으며, 가까이 지름을 깨내며 '화답'했다. 이번에 프리즈에는 이탈리아의 저명한 현대미술가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개인전, 키아프에는 '멀티 진영'으로 양쪽 페어에 참가했던 갈레리아 콘티누아 관계자는 'VIP 프리뷰 때 온 한 관람객의 경우, 피스톨레토를 잘 몰랐지만 한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 나흘 내 네 방문하는 열정을 보였다'며 그 작품이 비평가들에게도 인정받았지만 관람객은 보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작가들의 해외 진출이나 재발견이 기대되고 있고, 과거, 특히 팬데믹 이전에는 홍콩, 싱가포르 등의 도시들과의 문화 예술 '번' 경쟁에서 뒤졌던 서울이 '아시아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여행이 자유롭게 재개되면 해외 콘서트의 발걸음도 기대할 수 있다). 21세기는 '소프트 파워'가 국가·도시 경쟁력의 관건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지만 동시에 손님에게 '인방'을 내준 채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경각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애초에 키아프와 프리즈가 '서울 제휴'를 발표했을 때부터 인기와 실적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



1 로제마리 트로엘, 바버라 크루거 같은 작가들의 대형 작품이 배경에 보이는 독일 화랑 스프루스 마케르스(Spruth Magers)의 프리즈 서울 2022 부스 풍경. 2 가오산(Gagosian) 갤러리에서 출품한 백남준의 작품 'Untitled(Bakelite Robot)'(2002). © Nam June Paik Estate Photo by Jeff McLane Courtesy Gagosian 3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하우스앤하우스(Hauser & Wirth)의 광고. 프리즈 서울 2022 참가를 알리는 내용으로 이번에 38억 원에 판매된 조지 콘도의 'Red Portrait Composition' 작품이 보인다. 4 프리즈 서울의 '포커스 아시아' 색션에 선정한 배해운 작가 전시 부스(후술 갤러리). Photo by SY Ko 5 근한데 가정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프리즈 마스터스 색션에 참가한 뉴욕 에라벨라 갤러리(Acquavella Galleries) 부스 풍경. 파프스, 앤디 워홀, 바스키아 등의 화작품을 들고 나왔다. ※ 1, 3, 5 Photo by Lets Studio, Courtesy Frieze and Lets Studio 6 프리즈 서울 2022년 전시장에 관람객들의 목을 숙이는 역할을 했던 루이나 라운지. 프랑스의 유서 깊은 소매인 브랜드로 이번에 김중혁 작가와의 '이트' 협업으로 자연과 생물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브랜드의 상징인 '블랑 드 블랑' 색션에 스킨 매그넷 15쌍에 표현해낸 소매인 루이나 라운지를 선보이고 프리즈 서울의 소매인 라운지를 꾸미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이미지 제공, 루이나 7 프리즈 서울에서 영웅 항우 브랜드 조 일론 란의 '홀 프레이그런스' 라인을 매체에서 영웅 항우 브랜드로 소개한 라운지. Photo by SY Ko 8 프리즈와 공동 개최한 키아프 서울(Kiaf Seoul) 2022에 참가한 가오산 부스에서 선보인 오수환 작가의 회화 작품. 9 국제갤러리 키아프 부스에서 선보인 함경의 작품. 10 프리즈 서울과 나란히 코엑스에서 개최된 키아프 서울에는 올해 1백64개 갤러리가 참가했다. 신성화(신)나 젊은 작가 중심으로 키아프 플라스크라는 새 위성 페어(9월 1~5일)가 SETEC에서 따로 열렸다. Photo by Kiaf Operating Committee, Courtesy of Kiaf 11 영국의 20세기 가장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과 오늘날 가장 밝은 루이-미 작가가 이끄는 아드리안 겐헤르(Adrian Genie)의 작품 16점을 전시한 'Flesh and Soul: Bacon/Genie'전이 크리스티 주최로 서울 분다심 청담에서 3일 동안 진행됐다(9월 3~5일). 장인회(회)가 했던 전시로 여기서 선보인 16점의 기법은 수완의 연례로 추정된다. 이미지 제공, 크리스티 12 크리스티 전시(분다심)에서 선보인 동사(동)를 대표하는 루이-미의 구상 초기 이끄는 아드리안 겐헤르의 유화 작품 '눈(Without Eye)'(2015). 현재 서울에서 전시 중인 아드리안 겐헤르 전시가 열리고 있던 목단도로 이동한 전시장이 보인다. 13 프리즈와 P21이 손잡고 진행 중인 최현우 개인전 '태(Manner)' 설치 뷰(P21 전시 공간). 키아프· 프리즈 주간에 맞바네 서울 평창동(갤러리2)과 아태(P21)에 각각 자리한 중소형 갤러리들이 힘을 합쳐 젊은 작가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전략적 행보가 돋보인다. 사진 속 작품은 최현우 작가의 2022년 신작 'T2'. Courtesy of the artist and P21 14 최정호 작가의 '이트' 협업을 펼친 서울 동대문 MCM 플래그십 매장 앞 풍경(최정호 작가의 작품 '인피니티'가 설치됐다). 이미지 제공, MCM

FRIEZE





The Women Who Inspire Us_15 가다 아메르(Ghada Amer)

Defying Boundaries

프리즈 서울이 열린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반가움과 웬지 모르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공원에서 유유히 미술 신채를 하며 아트 페어를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은 세계적인 아트 페어 브랜드가 된 프리즈(Frieze)는 2003년 가을, 런던 리젠트 파크에서 출발했고,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형 전시장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텐트형 전시 공간을 무대로 동시대 미술을 선보이는 발상의 미학을 펼쳐냈기 때문이다. 적어도 올해는 그런 기대를 접어야 했지만, 그래도 도시 곳곳의 다채로운 공간을 수놓는 콘텐츠의 향연은 여전히 반가웠다. 그런데 콘텐츠 폭증을 꺾다 보니 지치기도 했고, 지나치게 많은 이들이 별 의미 없이 스쳐가니 괴곤하기도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존재가 간혹 등장하기도 한다. 얼마 전 서울 송원아트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개인전을 위해 멀리 미국 뉴욕에서 찾아온 가다 아메르(Ghada Amer). 작업 세계는 어느 정도 낮익은 편이었지만 그녀와의 대면은 처음이었는데, 폭풍 같은 일정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유쾌하면서도 진정성이 담긴 대화를 나누게 된 행운의 만남이었다.

세상에는 어떤 원칙이나 사상, 이념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더라도, 그저 자신에게 솔직하고 현실의 차별적인 상황에 주눅 들지 않고 맞서다가 자연스레 '행동'이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더라도 페미니스트라고 공개적으로 선언까지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말이다. 젠더 이슈가 심각한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이라면 어떻게? 뉴욕이 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 가다 아메르(Ghada Amer)는 이집트 카이로 태생(1963년생)으로 젠더와 섹슈얼리티 같은 주제를 즐긴 다뤄온 작가다. '이슬람 여성 예술가들의 뉴욕 성공기. 언뜻 이렇게 단어를 조합해놓고 보면 처음부터 잔디르처럼 저항한 페미니스트 투사 같은, 소위 '센케(강한 캐릭터)'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실제로도 그녀는 에너지가 넘치고, 당당하며 솔직한 면모가 드러나는 하지만 섬세한 배려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닌, 어렵지 않게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다분히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였다. 가정환경을 살펴봐도 '억압이나 차별'을 많이 받았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진보적인 외교관 아버지와 화학을 전공한 농경제학자 어머니를 뒀고,

부모님의 일과 학업 때문에 11세에 프랑스 니스로 이주했다. "전 부모님의 교육열 덕분에 그분들이 이집트도 돌아간 뒤에도 니스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해나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무래도 당시 이집트는 여성이 자유롭게 교육받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데 프랑스 땅이라고 해서 그녀에게 커다란 디딤돌이 되어주지는 못했다는 게 반전이라면 반전이다. 지금도 인종차별적 '시선은 존재하겠지만 당시에는 이집트 문화권에서 온 이방인 소녀에게 훨씬 더 배타적인 분위기였던 것이다.

프랑스 남부에서 버터낸 청소년 시절, 미국행을 꿈꾸다
 남프랑스에서의 청소년 시절은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다 아메르에게는 여러모로 기회를 선사했다. 우선, 미술 입문의 길을 열어줬다. 사실 그녀의 부모는 미래의 생계가 심히 염려되는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찬성하지 않았고, 당연히 미술 공부도 탐탁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워낙 그라기를 좋아했고, 미술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관심이 남달랐던지라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스무 살 넘어서야 미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은 일단 마치고 '건축'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마침 부모님이 귀국을 하시고, 전 닷엔 학교를 가고 저녁엔 미술 입시를 준비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전혀 모르셨죠." 그녀는 부모님의 부계 덕분에 아티스트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배시시 웃었다. 그렇게 해서 예술 학교 빌라 아르송에 다녔던 가다 아메르는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손조롭지 않을 것도 없었던 '회화 공부'의 벽을 깨닫게 된다. 일부 회화 수업을 남학생만 받을 수 있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 때 당시 엄연한 현실의 편견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창의적 나래를 보다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미국행'을 꿈꾸게 됐다. 그리고 실제로 추진을 거듭해왔지만 비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미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공부를 이어나간다. 이렇듯 여성, 국적, 종교 등 여러 이슈가 발목을 잡자 내면에서 '저항 의지'가 생기고 점점 머리끝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던 긴 어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외롭거나 분노로 점철된 일상을 보내지는 않았다. 다행히 그녀 곁에는 평생 지기로 남은 이란 출신의 '남사친도 있었다. 훗날 뉴욕행도 함께했을뿐더러 2000년대 초반부터 아메르와 살브질과 '자수' 등으로 돌이켜 하나의 시각 언어를 만드는 '공동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동갑내기 아티스트 레자 파르콘데(Reza Farkhondeh)다. 아메르는 팬데믹 시기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견뎌야 하기도 했는데(지금은 많이 회복해 건강한 상태다), 곁에서 돌봐주고 한결같이 응원해주며 원기를 북돋아준 영혼의 단짝 같은 존재다.

'여성을 주제로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들다'
 다시 199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 마침내 아티스트 신분으로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된 그녀는 여성에 관한 질문을 예술로 풀어내는 작업을 활발히 해나갔다. 그리고 여성의 활동으로 여겨지는 '자수(刺繡)로 캔버스를 메우는 작업'으로 차츰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남성적인 페인팅의 주재료인 물감과 붓 대신 실과 바늘을 꺼내 든 것이다. 사실 그녀는 초기부터 조각이든 회화든 자신의 어머니가 즐겨 하던 자수 순간에 매체를 가리지 않고 늘 다양한 시도를 해온 편이었는데, 단지 자수로 먼저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한

다. 수채 물감과 더불어 실을 활용해 캔버스를 수놓은 아메르의 자수 회화는 그만큼 묘한 매력이 있었다. 일방적인 남성의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포르노 잡지의 누드나 여러 여성들의 삶에서 차용한 다양한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화폭에 담지만 관능성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품고 있는데, 언뜻 추상회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녀는 인지도를 점차 얻으면서 장르와 매체 실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자기,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 브론즈(청동) 조각, 야외 공간을 근사하게 탈바꿈시키는 식물 설치(정원 시리즈) 등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다층적인 매력은 그렇게 영글어갔다. 필자가 처음 접했던 건 속은 뽕 뚫려 있으면서 둥그런 달갈 모양을 이루는 선의 미려한 울동이 인상적인 원형 조각 시리즈. 그녀가 'empty sculpture'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작업이었다. 정치와 성, 신체와 언어의 양면성을 안팎의 구조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작품의 속을 비우는 조각 언어가 흥미로웠는데, 알고 보니 그중 실제 사람 크기로 조각한 'The Blue Bra Girls(파란 브라지어의 소녀들)'라는 작품은 이집트 독재 정권의 압제와 폭력에 당당히 맞서는 여성의 용기를 향한 '현사'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오는 12월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금의환향' 회고전
 이번 프리즈·키아프 서울 주간에 타나킴 갤러리가 송원아트센터에서 공개한 가다 아메르의 전시명은 〈Paravent Girls / 파라벤프 걸〉(8월 30일~9월 15일). 그녀와 뉴욕에서 오랜 호흡으로 창조적 협업을 해온 타나킴 갤러리는 앤드루 크랩스 갤러리, 보르톨라미 갤러리와 함께 개최하는 뉴욕 화랑들의 협력전 〈The Cumulative Effect / 누적효과〉와 더불어 아메르의 개인전도 준비했다. 'paravent'라는 단어 뜻대로 스크린(병풍)의 형태를 한 커다란 청동 조각 작업을 선보인 전시다. 수많은 제작소가 문을 닫게 만든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타나킴 갤러리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의 주물공장에서 완성된 작품 시리즈라고. 여성 인물들이 새겨진 조각 작품의 원본은 사실 길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종이 박스다. 물건을 옮기는 박스 위에 작가는 붓 대신 무른 점토를 사용해 이 여성들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박스의 면면을 잇는 절개선이 있는 부분을 펼치면 마치 병풍처럼 세워놓을 수 있다. 긴 머리를 휘날리는 여성들의 안식처가 되는 셈이

1 서울 송원아트센터에서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된 가다 아메르(Ghada Amer) 작가 개인전 〈Paravent Girls / 파라벤프 걸〉 설치 모습. 한국 주물공장에서 완성한 대형 청동 조각 시리즈를 처음 선보였다. Image Courtesy of the Ghada Amer and Tina Kim Gallery, New York Photography by Susan-Work 2 파라벤프 걸 전시 개막에 맞춰 서울을 찾은 가다 아메르가 자신의 청동 조각 작품을 배경으로 서 있다. Photo by SY Ko 3 Ghada Amer, 'Julia's Pink'(2005), Acrylic, embroidery and gel on canvas, 162.9 x 193.4cm, Courtesy Tina Kim Gallery, New York. 4 지난 9월 22일 VIP 프라부르 박물관 방문한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2022에 참가한 타나킴 갤러리(Tina Kim Gallery) 부스에 걸린 가다 아메르의 작품 'I CAN DO BETTER IN HEELS'(2022). Embroidery and gel medium on canvas, 177.8 x 127cm. Photo by SY Ko 5 'The Red Portrait'(bronz)(2021). Painted bronze, 23.5 x 38 x 11 in Photo 6 Ghada Amer, 'Women's Qualities'(2021), DESERT X, Sunnyslans Center & Gardens, CA, United States, 1997년 시애틀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가다 아메르의 '정원(Garden)' 시리즈 중 하나. 2000년, 부산 연남동에서 열린 프로젝트를 선보인 적 있다. Photo by Lance Gerber, courtesy Desert X and the artist. 7 Ghada Amer, 'The Hunter-RR'GA(2020). 평생 지기로 인이된 출신 아티스트 레자 파르콘데(Reza Farkhondeh)와 협업해 선보인 작품. Acrylic, embroidery, and gel medium on canvas, 106.7 x 127 cm 8 Ghada Amer, 'Baisers 12011/12'. Black painted bronze, 57.2 x 40.6 x 50.8 cm, Edition of 6. * 5, 6, 7, 8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Tina Kim Gallery.



다. "형상과 배경, 회화와 조각이라는 전통적 위계는 사라지고, 이름 없는 씨앗이 땅에 내려앉아 자라는 정원의 섭리와 같이 껍데기만 남은 박스는 인물을 담아내는 주수가 되고, 여성의 이미지는 날아다니는 박스의 거주자가 된다"는 큐레이터의 설명이 와닿는다. 존재감이 남다른 이 청동 스크린 시리즈는 오는 12월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유에 있는 국립 미술관 Mucem에서 열린 그녀의 개인전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뿐 기억도, 즐거움 추억도 많은 그녀의 고향 같은 도시 니스와 가까운 이웃 도시인 마르세유를 상징하는 국립 미술관에서의 전시라니, 무척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터. 정말 기쁘고 뜻깊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는 가다 아메르는 안 그래도 "프리즈 서울 개막을 보고는 전시 준비자 마르세유로 향할 예정"이라고 눈빛을 반짝였다. 글 **고성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울 강서구 일대에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는 현대미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마곡동의 스페이스K 서울에서는 프리즈 서울 주관을 앞두고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스페이스K 서울이 강서구와 기획·협업한 에릭 오(Erick Oh, b. 1984)의 신작 단편 애니메이션 <오리진(Origin)>이다. 지난 8월 24일부터 미술관 외벽과 미술관 부지 내 작은 공원 바닥에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상영되고 있는 이번 작품은 미술 애호가는 물론 동네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미술관 내에서는 독일 작가 다니엘 리히터의 개인전이 진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에릭 오는 <오페라(Opera)>로 2021년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최종 후보, 2022년 <나무>로 연속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인물이다. 픽사(Pixar) 애니메이터 출신으로, 독립 단편영화와 2018년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크리스털상을 받은 <PIG: The Dam Keeper Poems> 시리즈 등으로 주목받았고 바오바브 스튜디오(Baobab Studios)의 새로운 가상 현실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페로탕의 두 번째 서울행, '강남'으로 확장

글로벌 아트 페어 프리즈(Frieze)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되자 미술계 주요 르네상스의 입국에 발맞춰 갤러리며 미술관이며 자차다 축제의 사면을 알리고 있던 지난 8월 말, 갤러리 페로탕(Galerie Perrotin)의 움직임이 시선을 끌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2호점인 페로탕 도산파크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1989년 파리에서 문을 연 유서 깊은 갤러리, 페로탕은 2016년 서울 상경동에 자점을 냈는데, 규모는 아담하지만 글로벌 메이저 갤러리 중진시 공간을 긴서울 자질을 낸 첫 사례였다. 사실 최근 수년간 상대적으로 조용한 인상을 준 편인데, 이번에 해외 갤러리 중 최초로 서울에 두 번째 전시 공간을 열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패션 하우스의 플래그십 매장이 줄줄이 늘어난 도산공원 인근에 자리한 페로탕 도산파크는 현대적이고 하얀 파사드 덕분인지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을 살짝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일본 건축가 겐타로 이시타가 이끄는 건축 사무소 KAWS가 내·외부 설계를 맡았는데, 층고 높은 2층에 걸친 전시공간은 쾌적한 분위기에 관람하기에 편안한 동선을 자랑한다.

페로탕 도산파크의 개관전으로는 영국계 미국 작가 엠마 웹스터(Emma Webster)의 개인전 <일루미나리움>이 열리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다. 이미 전 작품 '솔드 아웃(sold out)'에 대가자 명단까지 가세한 1989년생 작가 엠마 웹스터는 수백 년 전 풍경과 가상 현실을 오가며 기묘하게 극적이고 아름다운 화면을 만든다. 가상 현실(VR) 프로그램과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전통적인 매체인 회화를 접목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리는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해내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오만함이 부른 입담한 기후·환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한다. 웹스터가 만든 화면은 SF 영화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다. 인간의 흔적 따위는 보이지 않고, 동식물조차 외계 행성에 존재하는 듯하다. 디지털 언어를 능숙하게 다루지만, 캐서린 태프트의 평문 글을 인용하자면, 웹스터는 빛, 부피, 정서적 표현 등에 있어서의 풍부한 양식적 방식에서 볼 수 있듯 니콜라 푸생 같은 프랑스 바로크 미술가부터 마크 모다나스트 조지아 오키프 등에 이르는 옛 대가들에 충실한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 8월 말 서울에서 열린 아티스트 토크에서 엠마 웹스터는 푸생이 작품 구성을 위해 작

은 무대장치와 왁스 모형을 만들고 조명의 각도를 조절해 정밀하게 구성된 작품을 완성해냈듯, 자신 역시 작업 초기엔 실제로 작은 조형물을 만들어 배치하거나 3D 프린팅을 통해 작품 속 공간감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연구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양성 증진에 한몫, 국내 작가 해외 소개에도 적극적

그동안 페로탕은 다양한 국적과 장르적 스펙트럼의 작가들을 한국에서 소개해왔다. 2016년 페로탕 삼창의 개관전 <로랑 그라스>(Laurent Grasso)를 비롯해 카우스(KAWS), 대니얼 아삼(Daniel Arsham), 베르나르 프리즈(Bernard Frize), 쉘진(Xu Zhen), 배리 맥기(Barry McGee)에 이르기까지 다국적 작가들의 전시를 꾸려왔다. 특히 무라카미 다카시를 대표 소속 작가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미스터(Mr.), 다카노 아야, 구라야 에미 등 그가 이끄는 아티스트 그룹 카이카이카키 작가들을 선보이는 데도 적극적이다. 한국 작가들과의 인연도 꾸준히 쌓아오고 있다. 2014년 파리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박서보 개인전을, 2015년에는 정창섭 개인전을 선보이는 등 한국 작가들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있으며 김중환과 이베도 소속 작가로 두고 있다. 이번 프리즈 서울에서 페로탕은 영미권에서 우주 예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타베레스 스트라찬(Tavares Strachan) 작가의 개인전 형식의 단독 부스를 통해 아시아에 최초로 소개했다. 미술 애호가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내년에 한국에서 타베레스 스트라찬의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드라마, 영화, 음악 등 K-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 미술 콘텐츠 또한 세계 미술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와 더불어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컬렉터의 유입과 확대, 탄탄한 한국 작가들과 문화 콘텐츠의 활발한 국제적 활동 등이 한국 미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로탕의 한국 총괄 백준성 시니어 디렉터는 한국 시장의 마력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국 미술계에 대한 페로탕의 자신감을 재확인하고 서울 문화 예술계의 활기찬 성장과 함께하고자 두 곳에서 전시 공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갤러리들이 가세한 서울의아트 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진다. 글 김수진에디터, 다블랜드 CD

1 패션 하우스가 밀집한 서울 강남 도산공원 앞에 새로 생긴 페로탕의 도산파크 2호점은 외관 자체가 무척 미니멀해 작품처럼 느껴진다. Photo by Kim Yongkwan, Courtesy of Perrotin. 2 페로탕 도산파크에서 열리고 있는 엠마 웹스터(Emma Webster) 개인전 <일루미나리움> 전시 풍경. 작가의 작품은 아날로그적이지 테크놀로지적이며 매우 전통적면서도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혼용해 도발적인 느낌도 준다. 3 프리즈 서울 2022에서 선보인 페로탕 부스 풍경. 뉴욕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타베레스 스트라찬(Tavares Strachan)의 작품을 아시아 최초로 소개해 열린 호응을 얻었다. 내년에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Photo by Andy H. Jung,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4 올해 카이피 부스에서 전시된 제인릭슨(Jane Dickson) 작가의 <Dreamland 14(2012)> 작품(acrylic on tell).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에릭 오(Erick Oh)의 2022년 신작 <오리진(Origin)>은 <오페라(Opera)>(2020)의 프리퀀 연작으로 우주, 생명, 인류의 존재와 기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상은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는 텅 빈 공간에서 시작된다. 이윽고 행성(지구 혹은 미지의 행성)을 둘러싼 얼음(혹은 반투명 유리처럼 보이는 물체)이 균열을 일으키며 영상의 변화를 이끈다. 검은 점이 하나씩 생겨나며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마치 사람이 흘러는 눈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행성은 어둠으로 뒤덮이는 듯 보이다가 강렬한 사운드와 함께 꽃잎 형상으로 폭발해버린다. 환상적인 꽃잎은 거대한 사운드와 함께 보라색과 푸른빛으로 피어나고, 꽃송이 한가운데에서 신비로운 노란빛 태양과 행성을 둘러싼 회색빛 행성이 출현하지만 이내 사라진다. 회색빛 작은 행성이 사라진 뒤, 마침내 가장 처음 등장했던 행성으로 돌아간다. 러닝타임은 5분이지만 무한 반복되는 이 작품은 '시작과 탄생, 인류의 변화, 성장, 죽음, 소멸'이 이어지는 긴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하도록 이끈다. 아름다움과 장엄함, 절망과 희망, 공허함과 두려움, 행복과 환희, 선과 악 등 다양한 감정으로 반응하게 만들지만, 서사를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함을 담고 있다. <오리진>은 특히 코스모스(cosmos)가 공간의 의미와 함께 아름다움과 조화를 뜻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한다. <오리진>은 <오페라>처럼 설치와 영화를 위해 기획되었고, 제작 기간만 2년이 걸렸다. <오리진>이 에릭 오가 어릴 때부터 품어온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과 삶의 기원에 대한 슬픈환희 개인의 이야기라면, 4년에 걸쳐 34명의 애니메이터와 함께 완성한 <오페라>는 인종차별부터 전쟁과 테러의 지속적인 위협, 인류를 괴롭

히는 질병 등 감독의 사회구조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오페라'라는 단어는 라틴어 'op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 노동, 작품 등을 의미하며(라틴어로 opus의 복수 주격형이 opera다). 9분 분량의 단편 <오페라>는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오케스트라가 함께 작업하는 방식을 따랐다. 에릭 오 작가는 '오페라는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인간 사회,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반영한 것. 정치적 갈등, 전쟁, 인종차별, 종교적 갈등, 자연재해 등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포착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오페라>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 안에 다양한 인간형 캐릭터로 채운 상호 연결된 24개의 서로 다른 서사가 담겨 있고, 이처럼 서로 다른 장면으로 이루어진 방이 동시에 펼쳐진다. 맨 위에는 왕이 앉아 있는데, 일렬로 늘어선 노예들이

바치는 끝없는 식사로 점점 살이 찌고 있다. 아래 방에서는 노동자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식과 연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의 중인 직원들이 나오는 장면부터 질린 머리를 용광로에 던지며 충추는 인물의 등장까지 다양하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카메라와 함께 하나의 연속 촬영으로 펼쳐지는데, 관람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 각자의 이야기로 각인될 것이다. 무한 반복되는 '무프' 아이디언은 역사의 악순환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활과 불멸을 향한 우주론을 서술한 러시아의 작가 니콜라이 피도로프(Nikolai Fyodorov)는 "지구는 인류의 무지업으로, 우주를 여행한다"라고 말했다. 에릭 오의 <오페라>와 <오리진> 작품을 보면 이 말이 연상된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상영되며, 오는 12월 2일까지. 글 찬수원/미술 저널리스트

Perrotin on the Go

한 도시 안에 다양한 특색이 존재하는 서울에 문화 예술 공간이 새로운 게임처럼 생겨나고 있는 요즘이다. 양질의 전시를 소개하면서도 공간까지 눈길을 끄는 글로벌 갤러리들의 '서울행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 예술 공간과 미술에 대한 한국 컬렉터들의 관심과 열정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만큼, 글로벌 갤러리들도 서울 진출에 적극 나서는 양상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미술 시장이 뒷받침하고, 최근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부를 축적한 '영 & 리치' 컬렉터의 미술품 수집 열기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찌감치 한국 시장에 터를 잡고 꾸준히 국내 컬렉터들의 마음을 두드려온 갤러리 페로탕의 행보가 눈에 띈다. 아트 페어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의 입성을 앞두고 서울 강남에 2호점을 내면서 해외 갤러리로는 최초로 강북(삼청), 강남(도산파크), 두 곳에 전시 공간을 운영하게 됐다.





(위부터) **스피드 임페리얼 컬렉션** 링 귀족의 품격을 담은 컬렉션의 링으로 연꽃 모티브의 곡선 세이프가 우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여성스러우면서 세련된 느낌의 자수정 이 매력적인 광채를 부여한다. 4백30만원. 문의 02-6905-3390 **티파니 T1** 링 4.5mm의 볼륨감 있는 사이즈의 로즈 골드 소재 밴드에 총 0.547캐럿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화려함을 부각한 링 8백90만원대. 문의 02-6250-9620 **쇼에 토르시드 드 쇼에** 링 코어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지는 다이아몬드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동성한 볼륨이 매력적인 링으로,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화려함을 더했다. 3천2백80만원. 문의 02-3442-3359 **그라프 트리플 비터블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링 우아한 지대의 나비 세 마리 가 손가락에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화이트 골드 소재에 0.45캐럿 파베 다이아몬드 세팅 링 1천1백만원대. 문의 02-6905-3330 **프레이드 포스텐** 링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담은 포스텐 모티브가 담긴 링으로, 사이드 밴드를 매치해 볼륨감을 강조했다.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도 더했다. 1천99만원. 문의 02-2514-3721 **블가리 비제르윈** 링 브랜드 헤리티지 비제르윈 라인인 3개 밴드로 이루어져 볼륨감을 부각하고, 18K 로즈 골드 소재에 가장자리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반짝임을 부여했다. 6백20만원대. 문의 02-6105-2120 **부셀라티 오라플** 파베 링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대형과 반복적인 시각 효과를 부활시킨 모티브로 탄생시킨 디자인. 화이트 골드 소재에 옐로 골드 포인트를 주었으며,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은은한 화려함을 선사한다. 1천1백만원대. 문의 02-6905-3490 **에디터 성진민**

fabulous volume

아름답고 매력적인 빅 사이즈 링 하나면 충분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시엔트 브랜드

Gold Rush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골드로 이뤄진 일명 '통골드' 위치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위치 프레스넬 쿼츠-오토 **엘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42MM** 기록상 높은 사이즈의 그린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베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문사인™ 골드로 이루어져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1만5천 가우스 이상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탁월한 항자성을 입증받았다. 5천1백30만원. 문의 02-6905-3301

스피드 해피 스포츠 2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사이에 있는 무빙 다이아몬드 디테일이 재미를 주는 아이코닉 워치. 오벌 형태의 지름 31, 31mm 케이스에 세컨즈, 아워, 미닛 기능을 갖췄고 매캐, 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4천8백87만원. 문의 02-6905-3390

블랑팡 빌라레 컬렉션 **칼렌더** 지름 40mm의 레드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베이지 다이얼을 매치해 모던하고 고급스럽다. 월, 일, 요일의 칼렌더가 캘린더 기능을 갖추었으며, 6시 방향에 하위스인 상징인 오묘한 표정의 달 일 라스트 문패이 조각 지리해 매력적이다. 5천3백만원대. 문의 02-310-5295

IWC 포르투피노 오토매틱 **몬테이즈 37** 직경 37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로 베젤에 세팅 처리한 6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감성을 부여했다. 고급 밀라노 메시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손목에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한다. 무브먼트 36800 칼리버로 작동한다. 4천8백30만원. 문의 1877-4315

블가리 오토 파.비.오 오토매틱 순수함과 정제미가 매력적인 오토 파.비.오 컬렉션의 골드 버전 워치로 지름 40mm 세탄-플라시 처리한 로즈 골드 케이스 디자인이 돋보인다. 브라운 선웨이 레커 다이얼이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아름다운 울음 배개한다. 기계식 매뉴얼러 울트라-신 무브먼트로 얇은 케이스 두께를 실현했으며, 100m 방수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2056-0170

제이스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베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18K 로즈 골드 소재로 이뤄진 워치로 멋스러운 화이트 다이얼에 라이트 그레이, 딥 그레이, 블루 컬러의 카운터를 매치해 포인트를 주었다. 중앙에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10시에 최 화려한는 샌드워 크로노그래프 핸드, 6시 방향에 위치해 60분 카운터, 3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 등 훌륭한 컴플리케이션을 갖췄다. 6천2백30만원. 문의 02-3479-6191

까르띠에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 22 X 30mm, 두께 6mm의 미니 사이즈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브랜드 헤리티지를 담은 팬더 드 까르띠에 라인의 주얼 워치다. 스틱스러움을 더하는 골드 플럼 및 브라운 그라데이션 다이얼에 총 0.27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7개를 세팅했으며,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액세서리로도 손색없다. 3천4백50만원.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진민**



플리츠 가죽 소재를 인트레피카도 유형으로
완성된 바스킷 모양의 독특한 핸들로
스타일링에 재미를 더한 캄보이로 백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타, 문의 02-3438-7882



(우부터) 하운즈투스 체크 패턴의 올 보디에 스카주 라이닝으로
마감된 웰링턴 백 1백75만원, 알프 로렌을 상징하는 스포츠
송이에서 모티브를 따와 말안장에 달린 등자의 매끄러운 윤곽을
표현하여 클래식한 디자인과 모던한 느낌을 선사하는 웰링턴 백
1백95만원 모두 **릴드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시그니처 T 버클 포인트가 매력적인 백으로,
착용했을 때 몸에 맞춰 차르르 떨어지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가 멋스럽다.
2백3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왼쪽부터) 우아한 곡선과 구조적인 면사도 부드러운 라이닝이
돋보이는 백으로 기하학적인 모양을 강조하기 위해 에너브라시
효과를 준 가죽이 포인트인 스몰 브러시드 가죽 핸드백 4백만원대,
같은 라이닝의 백으로 브랜드 시그니처 컬러인 올 블랙에 반짝이는
가죽 소재가 돋보이는 미디엄 브러시드 가죽 핸드백 5백만원대
모두 **프라다**, 문의 02-3218-5320



New Face

늘 새 시즌이 되면 쏟아지는 브랜드 얼굴들. 이번 시즌을 책임질 F/W 뉴 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2022 F/W 패션쇼에서 영감을 받은 LV 기든 에-메이션의 일부인 플라워 패턴을
메탈릭한 캔버스 소재에 담아 선보이는 나노 바킷 백 2백50만원대,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담은
귀여운 트렁크 실루엣에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캔버스와 골드 톤 록 디테일을 더해 클래식한 하우스
모티브를 완성한 트피드 밀 7백만원대, 모두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F/W를 상징하는 하운즈투스 패턴의 패브릭 소재로
색다른 매력을 주는 피카부 아이씨유 미디엄 백
6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14-0652



반짝이는 느낌이 매력적인 페이턴트 카프스킨
소재에 직사각형 세이프로 클래식하고 모던한
감성을 주었으며 골드 메탈 소재와 핸들 장식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한 스몰 블랙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우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레이디 백에 새로운 패턴을 더해 색다른
매력을 추가하는 뉴 레이디 백, 스퀘어로
세이프가 접혀있어 클래식한 무드를 주는
블랙 이카나-쥬 카프스킨 소재의
에센셜 백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480-0104 **에디터 성영민**



이 스타일은 신학기

(위) 바진 울 소재의 예코 사원 재킷 4백10만원 토티, 캐시미어 소재의 카키 컬러 원피스 6백만원대, 폴리아미드 소재의 네이비 컬러 장갑 톱 6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투톤 컬러 롱 레더 부츠 가격 미정 **버버리**, (아래) 캐시미어 & 울 소재 핑크 컬러 베스트 4백20만원대 **마우 미우**, 니ylon 소재의 핑크 컬러 윈드브레이크 18만8천원, 핑크 컬러 터틀넥 폴오버 가격 미정, 폴리에스터 소재의 브라운 컬러 스카트 24만8천원 모두 **르 코스뜨**, 스포티한 느낌의 선글라스 37만8천원 **프라다 라네이 로사 by 에실로 록스타카**, 보라색 삭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BIG MATCH

필드 위에서 펼쳐지는 스타일리시한 게임, F/W 뉴 골프웨어 컬렉션.
photographed by cho sung hyun



(왼쪽) 블랙 컬러의 양가죽 블루즈 9백20만원, 캐시미어 소재의 그레이 컬러 폴로 셔츠 2백30만원, 카펫 울 소재의 트래커 팬츠 가격 미정 모두 **디올 맨**, 화이트 컬러 폴오버 넥 워셔 가격 미정 **스트 아이클랜드**, (오른쪽) 레커 효과를 준 오버사이즈 블랙 다운 재킷 3백97만원 **생 로랑**, 블랙 컬러 폴오버 니트 톱 2백30만원, 폴리에스터 소재의 블랙 베스트 4백50만원, 코튼 소재의 네이비 컬러 캡 가격 미정 모두 **에르메스**, 스카티 블루 컬러 테일러드 팬츠 가격 미정 **폴드**, 가죽 소재의 블랙 & 화이트 스니커즈 가격 미정 **올세인트버나**.

(왼쪽) 울 & 캐시미어 소재의 풀오버 등,
트위드 소재의 화이트 컬러 레이스업 슈즈
모두 가격 미정 **사슴**, 블랙 컬러 플리츠 스커트
가격 미정 **팔레트인 골프**, (오른쪽) 울 소재의
패턴 스웨터 가격 미정 **보타가베타**, 블랙
컬러의 아이웨어 가격 미정 **토포드 아이웨어**.



(왼쪽) 레드 컬러 크루넥 니트 등 가격 미정 **로아베**,
울 소재의 레드 컬러 패턴 V넥 등 70만원 **겐조**, 울 소재의
플로 셔츠 1백50만원대 **마우 미우**, 코듀로이 소재의 레드 컬러
소츠 28만6천원 **르 소넷**, 가죽 소재의 패턴 로퍼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다크 그레이 컬러 니삭스 가격 미정 **자모어**,
(오른쪽) 폴라리이드 소재의 민트 컬러 베스트 2백43만원,
폴라리이드 소재의 민트 컬러 스커트 92만원 모두 **몽클레르**
컬렉션, 울 소재의 패턴 니트 등 2백50만원대 **프라다**, 패턴
선글라스 28만원 **젠들 몬스터**, 연두색 삭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왼쪽) 그린 컬러 패쉬워크 스타일을 재킷, 로고를 더한 네이비 컬러 볼캡, 화이트 컬러 코듀로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자표어**. (오른쪽) 광택감이 돋보이는 스카이 블루 컬러의 패딩 베스트, 화이트 컬러 코듀로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자표어**.

(왼쪽) 바진 울 캐시미어 소재의 브라운 컬러 스웨터 1백50만원대 **토즈**, 머스타드 컬러 터틀넥 폴오버 11만2천원 **르 소넷**, 체크 패턴 스카트 가격 미정 **폴렌씨**, 캔버스 소재의 브라운 컬러 패턴 바짓 헷 69만원 **로아베**, 잔잔 피혁 소재의 화이트 컬러 골프 장갑 4만원대 **컬러웨이**. (오른쪽) 코듀로이 소재의 그린 컬러 패딩 재킷 1백83만원 **몽클레르 캄페리안**, 울 소재의 카디건 1백70만원대, 코튼 소재의 블루 컬러 셔츠 1백30만원대, 울 소재의 체크 패턴 스츠 가격 미정, 양가죽 소재의 벨트 70만원대 모두 **미우 미우**, 카키 컬러의 카프 스킨 스웨이드 부츠 2백30만원대 **에르메스**, 골프 볼 가격 미정 **컬러웨이**, 연두색 색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왼쪽) 광택감이 돋보이는 나일론 소재의 핑크 컬러 프라미엄 다운 하이브리드 재킷 가격 미정
 4인원용 알라웨이, (오른쪽) 광택감이 돋보이는 나일론 소재의 옐로 컬러 프라미엄 다운 반소매 재킷, 그레이 니트 롬, 화이트 컬러 사이트 버튼 디테일 팬츠, 가죽 소재의 화이트 컬러 골프 슈즈, 옐로 컬러 니트 바니 모두 가격 미정 **자표어**.

(왼쪽) 나일론 & 폴리염화 소재의 패딩 베스트 가격 미정 **프라다 리베아 로사**, 울 소재의 블랙 & 화이트 소재의 1백40만원 **알렉산더 맥퀸**, 코튼 & 폴리아이데 소재의 화이트 컬러 울로 셔츠 80만원대 **에르메스**, 코튼 소재의 블랙 컬러 팬츠 1백51만원대 **모스카노**, 소프트 바이탈 소재의 금장 장식 로퍼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나일론 소재의 겹 가격 미정 **스토 아일렌드**, 골프 볼 가격 미정 **캘리웨이**, (오른쪽) 울 소재의 패치워크 재킷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코튼 & 폴리아이데 소재의 화이트 컬러 울로 셔츠 80만원대 **에르메스**, 나일론 소재의 그린 컬러 배기 팬츠 1백10만원대 **토즈**, 소프트한 느낌의 선글라스 37만원 **프라다 리베아 로사 by 에실로 룩스타카**.

헤어 박수정
 메이크업 배재석
 모델 **Kornel Danion, Anja Szylicz**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몽클레르 컬렉션 080-311-0000 토즈 02-3438-6008
 에르메스 02-542-6622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사일 080-200-2700 루이 비통 02-3432-1854
 버버리 080-700-8800 프라다 02-3218-5320
 미우미우 02-3218-5331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르 소넷 070-8865-5091 에실로 룩스타카 02-501-4436
 디올렌 02-3480-0104 스톤 아일랜드 02-516-2785
 생 로랑 02-549-5741 톨 포드, 톨 포드 아이웨어 02-6905-3534
 몰체간지버나 02-6953-4115 콜레에 02-6905-3470
 진조 02-3479-1007 자표어 02-3677-9702
 진들 몬스터 1600-2126 필립 플레인 굿프 02-3442-3087
 플렌씨 02-6905-3539 캘리웨이 02-3218-7400

Art for Beauty

오랜 시간 지속되는 아름다움을 위한 연구 개발 끝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발몽(Valmont). 이를 시각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담긴 발몽 아트 재단(Fondation Valmont)에 대한 이야기.

뷰티와 코스메틱 브랜드로서의 발몽에 대한 히스토리

발몽은 코스메틱 관련 전문 기술과 탁월한 효능을 갖춘 셀룰러 코스메틱 클리닉에서 출발한 세계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 1905년 스위스 몽트뢰(Montreux)에 처음 자리 잡았다. 에스테틱 치료를 전담하는 최초의 기관인 발몽 클리닉은 코코 샤넬부터 찰리 채플린, 잉그리드 버그먼, 소피아 로렌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타와 상류사회의 뷰티 클리닉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1980년 최고의 제품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저명한 미용 전문가 나디아 박사에게 세포 전문 기술과 함께 최고의 활성 분자를 이용한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도록 하면서 발몽 코스메틱이 탄생했다. 발몽은 100% 스위스 천연자원과 첨단 피부 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결합해 우수한 효능을 전한다. 특히 발몽의 주력 활성 성분이자 브랜드 콘셉트의 핵심 요소인 DNA는 발몽 기술의 집약체로 탁월한 보습과 항산화 및 활력 증진 효과 등을 제공해 놀라운 세포 재생 능력을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각 라인에 700m가 넘는 발몽만의 피도-알파인 정원에서 재배한 장미와 씨베크트 및 에케네시아 추출물, 스위스 자연을 누빈 별 등 최고의 스위스 천연자원을 핵심 원료로 사용해 피부 영양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선사한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예술적 화려함에 대한 찬사이자 더욱 활력 있는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발몽의 염원을 담은 프레이그런스 라인까지 셋업해 토털 뷰티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다. 팔라초 본비치니(Palazzo Bonvicini)는 발몽 재단이 향수를 위해 마련한 하우스 오브 프레이그런스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다. 지금까지 세 가지 향수를 선보였으며, 앞으로 스킨케어부터 향까지 발몽이 전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와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1

뷰티, 아트와 만나다

발몽의 오너 디디에 기욤(Didier Guillon)은 CEO이자 아티스트로 불린다. 프랑스 출신의 스위스 기업가이자 큐레이터, 자선가, 미술품 수집가 및 예술가 등 뷰티와 아트에 관련된 호칭은 다양하다. 예술과 관련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예술을 사랑하며 방대한 지식을 자랑한다. 그 때문에 창립 이래부터 발몽 그룹의 회장이자 아트 디렉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발몽 재단(Fondation Valmont)을 통해 다양한 예술가와 작품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는 발몽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예술과 아름다움을 결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발몽의 가장 큰 이념이자 기조라 할 수 있다.

발몽 재단의 탄생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디디에 기욤은 자신의 컬렉션을 주축하고 젊은 예술가를 지원함으로써 현대미술의 부흥에 전념하는 지금의 발몽 재단을 탄생시켰다. 2018년에는 팔라초 본비치니에 발몽 재단의 주요 본부를 두었으며, 지금은 여기에 하우스 오브 프레이그런스도 배치해 함께 운영 중이다. 매년 이곳에서 전시회를 열고 공동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베네치아 예술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일본 긴자와 미국 뉴욕, 이탈리아 밀라노 등에서 선보인 <디디에 기욤의 화이트 미러(White Mirror by Didier Guillon)>부터 가장 최근 진행한 <불운한 앨리스(Alice in Doomedland)>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도시, 갤러리와 협업해 더 많은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곧 선보일 전시는 아시아 최초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로, 그와 그의 막내딸이 영감을 받은 고릴라, 탄자니아의 이보에 대한 스토리를 담았다.

자유를 열망하는 고릴라 이보를 위한 특별한 여정

발몽 그룹을 이끌고 있는 디디에 기욤의 막내딸 밸런타인(Valentine)은 독일 베를린 동물원의 아이쿰인 고릴라 이보(Ivo)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매료되었다. 이보는 그녀에게 풍부한 감성을 불어넣은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이보가 동물원을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자연 전시를 자유가기를 바라게 되었다. <탄자니아의 이보

사진 제공: www.fondationvalmont.com



<Ivo in Tanzania> 전시를 탄생시켰다. 고릴라 이보가 아트 기획전의 아이쿰이 되어 다채로운 색상으로 표현되었으며, 행복한 고릴라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에 모로코와 남아프리카에 이어 유럽을 거쳐 서울에서 선보이게 된 것이 매우 뜻깊다. 디디에 기욤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동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탄자니아 잔지바르를 여행하면서 탄자니아의 마사이 문화와 풍요로운 자연, 장엄한 건축물과 선조의 노하우가 담긴 전통 직물 키팅게에서 새로운 이보의 서사시를 써 내려가기 위한 영감을 찾았다. 탄자니아 여성의 손끝에서 탄생한 직물인 키팅게가 디디에 기욤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된 것이다. 다양한 색채로 이루어진 키팅게는 정교하고 조밀한 구성의 패턴으로 장식되는데, 이는 1800년대 중반 이래 아프리카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통 디자인과 현대적인 혁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허리에 걸치는 탄자니아 전통 복장인 로인클로스에는 탄자니아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 스토리를 반영한 이보는 국경을 초월해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채로운 탄자니아 전통 직물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이보를 함께 전시하는데, 화려한 실크스크린으로 탄생한 이보는 물론, 재활용 골판지 조각으로 완성한 이보,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각 배너 이보까지, 탄자니아 여성의 전통 장식인 키팅게의 텍스처와 컬러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를 모두 담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콘셉트를 준비해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여러 제품으로 구성된 발몽 존과 베네치아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퍼퓸 컬렉션인 스토리에 베네치아 존,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인 엘릭시 데 그라씨에 컬렉션 존까지, 3개의 팝업 존을 구성해 발몽의 모든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로젝트 룸에서는 17세 소녀 밸런타인과 디디에가 자연의 세계에서 사는 이보를 만나기 위해 우간다로 향하는 여정을 카메라 감독 시릴 뒤코테(Cyril Ducotte)의 영상에 담아 최초로 공개할 예정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번 아트 기획전에 대한 몰입감을 한층 높여줄 예정이다. 이 전시를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 서울에서 가을 채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위치한 글라스 하우스를 선택했다. 경이로운 미적 대상을 예술과 건축물로 재해석한 저명한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 경이 탄생시킨 이곳은 풍부한 식물 정원과 밝은 분위기, 신선한 미풍으로 대자연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이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보 기념품을 구매하면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를 돕는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하며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별도 마련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로 꾸몄다.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현대백화점 목동점 7층 글라스 하우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자유와 창의성을 사랑하는 많은 고객과 예술 애호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전시가 될 것이다.



새롭게 선사하는 집중 탄력 안티에이징, V-FIRM

프레스티지 스위스 코스메틱 브랜드 발몽에서 새로운 안티에이징 라인을 선보인다. 스위스 천연자원과 발몽만의 오랜 안티에이징에 대한 연구 개발과 그로 인한 노하우를 집약해 탄생시킨 집중 탄력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셀룰라 과학의 정점에서 탄생한 V-FIRM 트리플 포뮬러가 핵심 성분으로 콜라겐 합성 복합체와 탄력 밀도 보강제, 재생에너지 촉진제로 이뤄져 생체 적합성과 이용률이 높은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최상의 피부 침투력과 탄력 증진 효능을 이끌어낸다. 총 세 가지 제품으로 출시하는데, 브이 펌 크림, 세럼, 아이로 구성되어 있다. 브이 펌 크림의 경우 고농축 스쿠알렌 성분을 더해 피부 자체 재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든 버티는 힘을 길러준다. 탄탄한 몸에 코어 힘이 중요하듯 피부 코어 힘을 강화하는 것, 이로써 자외선이나 각종 자극으로 인한 피부 노화 진행을

늦춰주어 잃어버린 피부 탄력을 되찾아주는 원리다. 그뿐 아니라 장벽을 강화해 피부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며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갖췄다. 텍스처 또한 풍부한 크림 제형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피부에 작용한다. 브이 펌 세럼은 V-Firm 트리플 포뮬러에 고농축 우유 단백질을 더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기능에 포커스를 맞췄으며, 섬세하고 크림미한 제형으로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즉각적으로 차오르는 피부를 느낄 수 있다. 브이 펌 아이는 발몽만의 셀룰라 기술로 탄생한 고분자 히알루론산과 리포솜 DNA 복합체로 강력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은 물론, 수분 증발을 막아 치진 눈가 탄력을 되찾아주고 세포막을 강화해 힘을 불어넣어주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이 세 가지 브이 펌 라인으로 발몽만의 혁신적인 V-Firm 기술력과 효과적인 리추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터 **성영민**

1 발몽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V-Firm 트리플 포뮬러가 함유된 새로운 탄력 안티에이징 라인. 2 9월 20일부터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열릴 <탄자니아의 이보(Ivo in Tanzania)> 전시 포스터. 3 <탄자니아의 이보(Ivo in Tanzania)> 영상 작업물. 4 9월 20일부터 <탄자니아의 이보(Ivo in Tanzania)> 전시가 진행될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글라스 하우스. 5 발몽 그룹을 이끌고 있는 디디에 기욤과 그의 막내딸 밸런타인(Valentine). 6 7월에 열린 <탄자니아의 이보(Ivo in Tanzania)> 전시장 풍경. 7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우리의 유리 거울(Murano Glass Mask)> 전시 작품. 8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더 룸 오브 티어스(The Room of Tears)> 전시장 풍경.



2



3

the color of autumn

서서히 붉어지는 단풍처럼, 입술 위에 가을 색이 물든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곁에 찾아온 신상 립스틱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스 에어 매트 울트라 립 틴트 321 틴트 온 광자립 가립과 얇은 리퀴드 젤 타입이라 여러 번 덧칠해도 투명하게 갈라져 레이어링할 수 있는 립 틴트. 와이드 밀고 버터 성분을 함유해 입술 속은 촉촉하게, 겉은 보송하게 만들어준다. 5.5ml 4만1천원대, 문의 080-564-7700

컬러 루즈 G 바티콜라이 리마티드 컬러션 케이스 & 벨벳 메탈 셰이드 721 미스틱 푸시아 미세한 글리터 입자를 함유한 벨벳 질감의 립스틱이 입술에 은은한 진주 광채를 더해준다. 빛을 반사하는 나비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은 케이스를 취향에 맞게 컬러 사용할 수 있는 카스토타이징 아이택이다. 케이스 4만9천원, 립스틱 3.5g 4만5천원, 문의 080-343-9500

조르지오 아브마니 뷰티 립 파워 206 세디르 붉은기가 적당히 섞인 브릭 레드 컬러가 입술에 고급스러운 음영을 더해주는 립스틱. 오일을 함유해 입술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한 겹 씌운 듯 하루 종일 촉촉한 컬러를 유지해준다. 3.1g 5만3천원대, 문의 080-022-3332

샹테카이 자라프 컬러션 립 시크 월로우 허일루르신을 비롯한 영양 성분이 입술에 수분을 가득 채워 플럼핑 효과를 더해준다. 이와 동시에 글로시한 광채를 머금은 뉴트럴 컬러가 입술에 화사한 생기를 부여한다. 2.5g 6만2천원, 문의 070-4370-7511

샤넬 루즈 일루르 텍스투레 854 강렬한 레드 컬러 입자를 풍부하게 함유해 한 번만 발라도 선명하고 강렬한 컬러를 발색하는 립스틱. 컬러 피그먼트에 오일과 코팅해 화사한 반짝임과 함께 입술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최대 8시간 동안 컬러를 유지해준다. 문의 080-564-7700, chanel.com

다올 루즈 포에버 스틱 647 포에버 레미안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더해주는 딥 코랄 컬러의 립스틱. 입술에 얇고 가볍게 밀착되어 선명한 컬러가 고르게 발색될 뿐 아니라 오일 성분이 공기 중으로 빠르게 날아가면서 옷과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까지 적용해 더욱 활용도가 높다. 3.2g 5만3천원대, 080-342-9500

자렌시 뷰티 리브 락 컬러션 루즈 슈어 벨벳 52 브릭 브라운 입술을 더욱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블러밍 소프트 벨벳 질감에 고급스러운 브릭 컬러를 더해 교묘적인 립 에디팅을 완성하는 립스틱. 자렌시의 4G 로고를 입체적으로 새겨 넣은 핑크 컬러의 케이스가 소장 가치를 높인다. 3.4g 5만4천원대, 문의 080-801-9500

아우클레스 맨탈 블러마이징 글리시 밤 헤이즈 보습 효과가 뛰어난 식물성 오일이 입술을 촉촉하게 해주고 멘탈 색인이 즉각적인 볼류마이징 효과를 더해 도톰하고 반짝이는 입술로 연출해주는 컬러 립밤. 1.7g 4만8천원대, 문의 1644-4490

스쿠 2022 A/W 컬러 컬러션 시어 매트 립스틱 14 부드러운 포근함부터 비이지 컬러가 부드럽게 녹아들며 입술에 핏색을 더해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해주는 립스틱. 가을 열매의 컬러를 담은 자연스러운 색감을 담아 어떤 룩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4g 6만 원, 문의 신세계백화점 강남 02-3479-1621 객원 에디터 김주혜

one fine day

가을의 문턱에서 즐기는 쿨 & 프레시 향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방향) 톰 포드 로즈 디 아말피 오드 파퓸 0.1리터와 0.3리터의 관능적인 풍미를 담은 향수. 스파이시한 베이 로즈 향에 스민 베르가모트 향이 은밀하고 관능적으로 다가온다. 아자르는 마스크가 차분한 진함을 남겨 여름이 오래도록 길든다. 50ml 33만 9천원대, 문의 02-6971-3211

루이 비통 플로루 퍼퓸 시티 오브 스타즈 천사들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향으로 표현한 만큼 낙천적인 기운을 지녔다. 오렌지, 레몬, 레드 만다린, 베르가모트, 라일락으로 어우러진 풍부한 시트러스 노트에 백단유와 타이라 꽃이 어우러진 플로럴 노트가 깊이를 더하고, 샌들우드와 마스카가 우아한 비아브를 연출한다. 100ml 40만원, 문의 02-3432-1854

디에스앤디가 그레이프프루트 제너레이션 이름에서 연상되듯 자음이 메인으로 활약해 싱그러운 향을 이룬다. 아자르는 산사나무 꽃과 투베로즈 노트가 한층 생기 넘치는 비아브를 연출하고, 달콤쌔스레한 자몽 껍질, 그리고 매니악릭 마스카가 조미료처럼 활짝해 한층 감미롭고 우아한 진함을 느낄 수 있다. 50ml 22만9천원, 문의 02-6905-3353

조일론 런던 루드 세이지 엔씨 슬트 코롱 영국 해변의 골짜기 바람에서 느껴지는 깨끗하고 캐주얼한 향을 블루 보틀에 담았다. 안보리트 시드와 베르가모트가 어우러진 낭만적인 과일 향을 시작으로 시슬트와 마네파 어코드, 세이지가 어우러진 미들 노트가 해변의 미풍에서 느껴지는 휴 내음과 묘하게 중첩된다. 아자르에 구아이어와 화이트 마스카가 어우러져 한층 진하고 풍부한 진함을 느낄 수 있다. 100ml 20만4천원, 문의 02-6971-3228

비아레도 마스터 마블러스 오드 파퓸 신성한 시트러스와 다크한 우드 향이 매력적인 제품. 싱그러운 과일 달콤한 네롤리 꽃의 향이 대나무와 녹색 라벤더가 어우러진 그린 노트와 만나 생기 넘치는 비아브를 연출하고, 앵퍼와 스파이시한 시타우드가 더해져 미 향의 여운을 은밀하게 지속시킨다. 100ml 34만원, 문의 02-3479-1688

메종 마르지엘라 레플리카 웬 더 레인 스타프 EDT 비가 그친 후 피시로운 햇살이 비를 때 느끼는 기쁨을 향으로 표현했다. 베르가모트와 로즈 페탈 에센스, 파플리와 모스 어코드 중심의 신선한 그린 노트에 스파이시한 텍스처의 핑크 페퍼가 어우러져 깨끗하고 절묘한 진함을 남긴다. 100ml 17만5천원, 문의 02-3444-1805 에디터 이주이

editor's Pick

새로운 계절을 본격적으로 맞이하는달, 새 기분을 선사할 이달의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누리방 위.베르셀 말티-유즈 나리싱 밤 일단 소중으로도 너무 예쁜 케이스부터 시작. 무형의 기분이 은은한 샤바더 향으로 바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무르지 않고 단순한 재향으로 너무 오묘하게 나 끈적이지 않아서 더 좋다. 건조한 가을바람에 일어난 눈이나 입술에 브러기 인성 맞음. 8g 7만7천원. 문의 080-650-0780. *by 에디터 성영민*

나스 에어 매트 울트라 립 틴트 #320 건외임드 색조 맛집 나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립 틴트. 알코 가변 포몰라가 녹아들 듯 발려 확실한 컬러감을 구현한다. 너무 진하거나 뭉친다 싶으면 위아래 입술에 각 3개 정도 칠한 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발라주면 된다. 5.5ml 4만1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장민준*

에디션 28 퍼플 프라임리얼 말 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 핸드크림 비르자피자 느껴지는 보습감 가득한 풍부한 크림 텍스처가 손을 한 걸음 촉촉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다. 우디 계열의 오리엔탈 플로어 향으로, 비르자피자 글썽 낚아기는 다른 핸드크림과 다르게 케어이 오래 지속되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향을 즐길 수 있다. 100ml 9만8천원. 문의 02-514-5167. *_by 에디터 성영민*

VDL 아이피인 내추럴 브로우카라 02 내추럴 브라운 미니 사이즈의 상큼한 브러시 가 메이크업 시 정교하고 세밀하게 눈썹 결을 살릴 수 있게 해준다. 펙 드라이 오일 을 함유해 더 빠르고 가볍게 발리며, 장시간 외출 시에도 눈썹 결과 컬러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어 매우 만족스럽다. 컬러는 그레이·내추럴·라이트 브라운, 세 가지. 5.5g 1만8천원. 문의 080-023-7001. *_by 2틴 에디터 신영민*

겔링 울트라 G 아이샤도우 워드 멀티 이펙트 940 로얄 정물 평소 은은한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을 즐겨 하는 편이다. 세틴, 단단 매트, 메탈릭, 펄 텍스처로 구성된 울트라 G는 겔링의 투박적인 색상을 넘어 가장 실용적인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원터 로얄 베이스가 들어 있어 눈꺼풀에 쉽게 발리고 가깝다. 1.5g X 4 12만2천원. 문의 080-343-9500. *_by 2틴 에디터 신영민*

알파시스 프로 클리닝 폼 클렌징 밤 오일이 함유된 클렌징 제품은 트러블을 일으키기 쉬운 편이다. 이 제품은 알파시스 클렌징 밤과 달리 유해물은 물론 세안 후에도 볼록한 문젠 없이 피부를 수하고 부드럽게 클렌징해주어 매우 만족스럽다. 100g 8만2천원. 문의 02-2054-0500. *_by 에디터 성영민*

누텍스처 그린 만다린 바디 워시 향에 집중하기 보다는 텍스처와 성분에만 집중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본다. 사용하는 동안 은은하게 풍기는 향이 좋았고, 더불어 샤워 후 느끼는 촉촉함까지 모두 만족스러웠다. 진향이 오래진 약한 향수를 즐겨 사용하는 에디터의 경우는 다른 향과 섞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만족스러웠다. 260ml 3만2천원. 문의 070-6787-6008. *_by 에디터 성영민*

벤스케어 클리닝 인텐티브 피토-레티놀 리사라이시 마스크 케어이 마스크 팩은 항상 양을 조절하기 어려웠는데, 이 제품은 완포로 정량만큼 나와 사용하기 편하다. 자제다 사용해보니 레티놀 유산 성분은 피토-레티놀과 비쿠아놀, 히드롤라이즈 클리닝 성분이 들어 있어 묵은 각질이 제거되는 것은 물론 피부가 탄력 있고 화사하게 개선되었다. 50ml 15만2천원. 문의 010-3709-7050. *_by 2틴 에디터 신영민*

연적 카림 & 김포팅 토너 뜨거운 여름을 보낸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토너. 열감이 오르고 예민해진 피부에 사용하니 확실히 온도를 낮추어 진정시켜주는 느낌이다.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각질을 케어해주는 것도 일일 딱 지름 꼭 필요한 토너로,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면 토너 패드 사용을 권한다. 150ml 4만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장민준*

샤넬 레 까트르 울트라 트윈드 #04 트윈드 브라운 에 로즈 대체로운 향으로 컬러, 그리고 스타일과 대변하는 샤넬 트윈드의 정감을 잘 보여 준다. 향을 불린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추천하는데, 로즈 플라워 워터 핑크 하이퍼미터블 믹스하늘 노을을 연상시키는 컬러가, 아이시 브라운과 초콜릿 브라운을 믹스하면 가을 느낌 발린다는 깊은 브라운 컬러가 완성된다. 자주 공부 크루주에서 제정한 트윈드 파워자를 함께 제공한다. 2g 11만5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장민준*

발리프 모이스처라이징 밤 스킵 케어이 피부에 건조해진 피부에 수시로 덧바를 수 있는 보습 밤을 찾고 있을 때 만난 발리프 밤 스킵. 에센셜 오일에서 추출한 세드를 이 들어 있어 주름 케어는 물론 끈적이지 않게 사용하듯 수분감과 광채까지 만족스럽다. 스킵 밤 향의 양은 사이프로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나 보습이 필요할 때 꺼내 쓰기 편하다. 7g 3만2천원. 문의 080-023-7007. *_by 2틴 에디터 신영민*

아유클레시 N 28 프라이머 세럼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피부 표현에 고민이 많았다. 이때 만난 N 28 프라이머 세럼. 촉촉하되 수분감이 끈적이지 않는 가벼운 타입의 오일 프리 마이크로 메이크업 베이스 단계에서 사용하기 좋았다. 에센셜·시물성 오일과 비타민 A·B·C·E가 포함되어 피부 속 영양까지 풍부하게 제공한다. 30ml 9만원. 문의 1644-4490. *_by 2틴 에디터 신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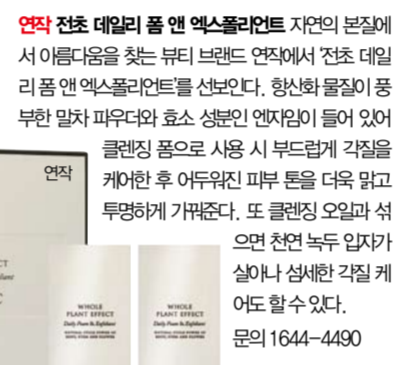
로아비 오 퍼플 안티 앤 인트 리브 기를 하면 생기는 우리 계절 향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한 번쯤은 이 향으로 분위기를 전환해보고 싶었다. 한디로록 특색 있는 안티와 리브, 민트가 느껴지는 생동감적인 향. 과일 나무에서 향긋한 리브와 한 오금을 들이킨 듯 신선하고 부드럽다. 제너는 아침과 낮에 잘 어울리는 에-제터 한 향이다. 50ml 10만9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장민준*



BEAUTY



다이아몬드 프레스티지 샤넬은 이 페브리에서 영감을 받아 레 까트르 울트라 트윈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얇혀 있는 트윈드처럼 47가지 컬러를 서로 불린듯하게 시크하면서 도 스타일리한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47가지 컬러, 4구 팔레트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연적 전초 대일리 풀 앤 엑스폴리언트 자연의 본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뷰티 브랜드 연적에서 전초 대일리 풀 앤 엑스폴리언트를 선보인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알차 파우더와 효소 성분인 연적잎이 들어 클렌징 폼으로 사용 시 부드럽게 각질을 케어한 후 어두워진 피부 톤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가꿔준다. 또 클렌징 오일과 섞으면 천연 녹두 입자가 살아나 섬세한 각질 케어도 할 수 있다. 문의 1644-4490

실론 다이아몬드 프레스티지 타이팅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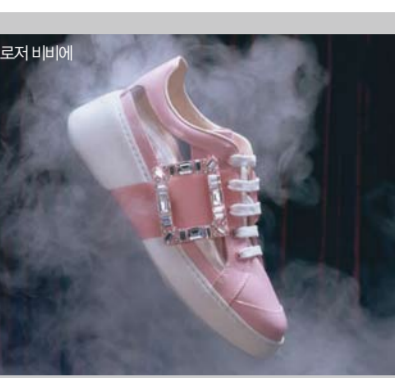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57 캠페인 공개 오메가에서 스피드마스터 출시 65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스피드마스터 57 캠페인'에 오메가의 아이코닉한 크로노그래프와 잘 어울리는 배우 조지 클루니, 스피드마스터처럼 끊임없는 진화를 보여주는 한인이 참여했다. '스피드마스터 57 캠페인' 블루·블랙·그린·버건디 다이얼 컬러로 87가지 모델을 선보이며, 전국 오메가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6905-3301

뽀샤이티 워크폴리오 컬렉션 출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뽀샤이티에서 식물성 소재로 만든 워크폴리오(Workfolio)를 출시한다. 이번 컬렉션은 버려진 식물성 기름과 천연 섬유 등의 원료로 만든 비건 소재를 사용해 디자인은 물론 지구와 환경까지 고려한 워크폴리오와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아이패드폴리오, 27가지 출시한다. 스타일과 환경까지 고려한 워크폴리오 컬렉션을 뽀샤이티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보자. 문의 02-2007-2943

시몬스 N32 플 매트리스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신제품 N32 플 매트리스를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자체 개발한 AR 폼으로 제재해 수면 시 열을 낮추고 쾌적함을 높였으며 고밀성 패던 폼을 적용해 수면 시 훌륭한 현상을 예방한다. 겹도에 따라 소프트·레귤러·하드, 37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취향에 따라 시몬스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프레임 및 베딩을 믹스 매칭할 수 있다. 문의 1899-8182

LIFESTYLE

SHOWROOM



란스미어 란스미어 골프 컬렉션 론칭 하이엔드 클래스에 모던함과 유행, 기능성을 더해 장인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럭셔리 브랜드 란스미어에서 2022 F/W 시즌을 맞아해 란스미어 골프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테크-울 등 고급 소재를 사용해 란스미어의 하이엔드 클래식함을 담았다. 아울러 기능성과 트렌디한 디자인의 조합으로 골프 프리엔드뿐 아니라 일상이나 레저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다. 문의 1599-0007

로저 비비에 비브 스케이트 스트라스 스니커즈 로저 비비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게라르도 펠리치가 새로운 PVC 소재의 비브 스케이트 스트라스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매종의 시그니처인 스트라스 버클

란스미어 란스미어 골프 컬렉션 론칭 하이엔드 클래스에 모던함과 유행, 기능성을 더해 장인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럭셔리 브랜드 란스미어에서 2022 F/W 시즌을 맞아해 란스미어 골프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테크-울 등 고급 소재를 사용해 란스미어의 하이엔드 클래식함을 담았다. 아울러 기능성과 트렌디한 디자인의 조합으로 골프 프리엔드뿐 아니라 일상이나 레저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다. 문의 1599-0007

펜디 2022 F/W 남성 컬렉션 파카류 아이씨유 포티 8 글로벌 패션 하우스 펜디에서 파카류 아이씨유 포티 8 백을 출시한다. 이템처럼 48시간의 긴 외출 시 짐을 챙길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백으로, 최고급 가죽 소재인 퀴오 로마노와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담은 FF 자카드, 송이자기족 등 다양한 소재로 선보인다. 파카류 아이씨유 포티 8백은 9월부터 전 세계 펜디 부티크와 fendi.com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4-0652

FASHION



오메가 란스미어 란스미어 골프 컬렉션 론칭 하이엔드 클래스에 모던함과 유행, 기능성을 더해 장인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럭셔리 브랜드 란스미어에서 2022 F/W 시즌을 맞아해 란스미어 골프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테크-울 등 고급 소재를 사용해 란스미어의 하이엔드 클래식함을 담았다. 아울러 기능성과 트렌디한 디자인의 조합으로 골프 프리엔드뿐 아니라 일상이나 레저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다. 문의 1599-0007

로저 비비에 비브 스케이트 스트라스 스니커즈 로저 비비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게라르도 펠리치가 새로운 PVC 소재의 비브 스케이트 스트라스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매종의 시그니처인 스트라스 버클

태그호이어 아이쿠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GMT 스위스 아방가르드 워치메이커 태그 호이어가 아이쿠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GMT를 출시한다. 이번 제품에서 단방향 항 회전 베젤, 최소 200m의 방수 기능, 아방 마징, 사파이어 크리스탈, 이중 안경 잠금장치까지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기능을 담았다. 아울러 컬러버전을 7종 이상에 최대 50가지의 파우 리저브까지 제공한다. 이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면 모험가들을 위한 최고의 워치인 아이쿠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GMT를 전국 태그호이어 부티크 및 매장에서 만나보자. 문의 02-548-6021

골든듀 레가시 카를 링 국내 대표 파인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가 레가시 카를 링을 선보인다. 전통 향초 문양을 모티브로 탄생한 레가시 카를 링은 우리 문화유산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 담긴 의미를 담았다. 심플한 금속 라인에 5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18K 화이트·핑크 골드, 27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88-6576

JEWEL & WATCH



RALPH LAUREN



랄프 로렌 컬렉션 단독 스토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TEL. 02 3467 6560

새롭게 오픈한 RALPHLAUREN.CO.KR에서도 컬렉션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